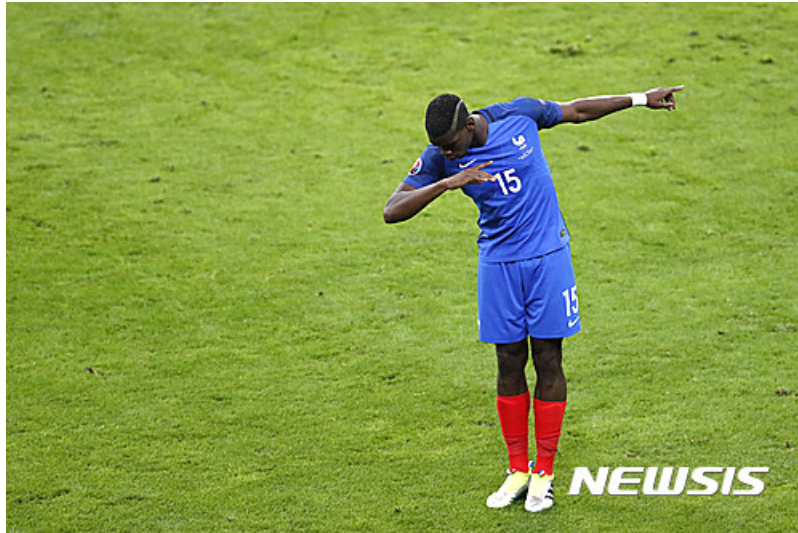


[EPL]"무리뉴, 첼시에서도 포그바 원했다"

등록 2016.09.30 11:21:41 | 수정 2016.12.28 17:42:59



【서울=뉴스시스】권혁진 기자 = 조세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첼시 시절에도 폴 포그바(23)의 영입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그바의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는 3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라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그바가 지난해 유벤투스를 떠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포그바를 노렸던 이는 당시 첼시를 이끌던 무리뉴 감독이었다. 라이올라는 "무리뉴 감독이 포그바의 영입을 간절히 원했다"고 설명했다.

무리뉴 감독의 바람은 포그바가 속해있던 유벤투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라이올라는 "나와 유벤투스는 세리에A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얻은 뒤 (포그바의 이적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A 5연패에 성공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기에 탈락했다.

포그바의 이적은 1년도 안 돼 이뤄졌다.

맨유는 지난달 무려 1억500만 유로(약 1290억원)의 이적료를 유벤투스에 지급하고 포그바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첼시 시절 포그바와의 플레이를 그렸던 무리뉴 감독은 맨유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겨 뜻을 이뤘다.

입단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포그바는 최근 기량을 회복하며 맨유 중원을 책임지고 있다.

